

##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라틴아메리카의 경제·통상 협력

쉬만(徐曼)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최** 근 몇 년간 국제 벌크스톡 가격의 영향으로 중국-라틴 아메리카의 전통적 상품 무역규모는 감소하였지만 무역 구조는 끊임없이 개선되었다. 양측은 투자, 금융, 생산력, 특히 그중에서도 인프라 건설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신속히 추진하여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통상 협력은 새로운 발전 단계로 발돋움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발전 플랫폼으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며 일대일로 건설을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발전전략과 결합하여 ‘1+1>2’ 효과를 보길 기대한다.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통상 협력은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무역을 살펴보면 국제 대중상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 한동안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무역규모가 감소했고 특히 중국의 對 라틴 아메리카 수출 하락폭이 비교적 컸다. 그러나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수입한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중국은 여전히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2대 무역 파트너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중국-라틴 아메리카의 무역규모는 2165.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하락했다. 그중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수출액은 1138.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8% 하락했으며 수입액은 102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하락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라틴 아메리카의 수출입액은 968.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으며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은 각각 13.7%와 21.9%로 무역규모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중국은 여전히 라틴 아메리카의 에너지, 광산, 콩, 설탕 등 농산물 최대 수입국이며 무역 품목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투자를 살펴보면 중국은 이미 라틴 아메리카의 3대 투자국으로, 투자 방식이 다원화되고 분야가 더욱 확대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중국의 비(非)금융성 대외직접투자는 298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투자 방식과 대상이 점차 다원화되며 대형 인수합병 프로젝트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투자 분야는 전통적인 에너지 광산 및 인프라에서 점차 금융, 농업, 제조업, 정보산업,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항공운송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고위층 간의 방문을 통해 중국-라틴 아메리카 간의 경제·통상 협력은 질적, 양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2016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라틴 아메리카를 방문해 ‘1+3+6’ 실무협력의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고 무역, 투자, 금융, 산업 간 연계 등 종합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중국-라틴 아메리카 포럼의 발전과 라틴 아메리카의 소지역 조직의 협력을 강화했다. 이는 향후 양측 무역의 호리공영(상호이익과 공동번영) 이념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페루,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지도자들 역시 중국을 방문하는 등 국빈 방문을 통해 상호 간의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실무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5월 칠레와 아르헨티나 대통령 및 20명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 고위 관리와 지방 책임자들은 중국이 개최한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해 지역 및 국가 발전 전략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연계하여 남반구 국가의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발전 수요에 부합하며 상호 소통 및 호혜적 협력이라는 바람에 호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 간의 인프라 건설 분야의 협력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지역은 인프라를 확충과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개발은행(CAF)과 미주개발은행(IDB)의 데이터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5%에 해당하는 재원을 인프라 건설에 투자해야 하지만 현재는 2%에 불과하다.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충분한 자금과 기술 그리고 관련 서비스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은 인프라 건설 및 자금 조달 등의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자금,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충분하다.

인프라는 중국-라틴 아메리카 경제·통상 협력의 새로

운 성장점이다. 중국은 현재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인프라 건설, 제조업 및 농업 등 여러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아르헨티나에서 수주한 수력발전소 건설 및 화물운반철도 보수 프로젝트, 브라질에서 수주한 고압 송전 2기 공정, 볼리비아와 콜롬비아에서 수주한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콜롬비아에서 수주한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등 여러 중대한 프로젝트는 현재 착수에 들어갔거나 머지않아 착수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콜롬비아의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중국 기업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입찰 받은 최초의 PPP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중국-라틴 아메리카 협력체계 고도화'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년간의 발전을 통해 중국의 제조업이 이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었기에 라틴 아메리카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현지의 일자리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술 및 관리 수준을 제고시켜 산업의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풍부한 수자원과 우수한 풍력 자원 및 태양열 덕분에 대대적인 개발에 적합하다.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는 상호 연결에 유리한 조건과 노하우를 갖췄지만 더 많은 투자와 기술이 필요하다.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의 경우 해당 국가의 에너지 부서는 현재 세 나라의 전력 연결망 구축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중국 기업은 기술, 장비 그리고 자금이라는 메리트와 중국-라틴 아메리카 생산력 협력 펀드 등의 자금 조달 루트를 충분히 활용하여 기업·사회·정부의 선순환 효과를 높이고 관련 프로젝트가 하루빨리 현실화되도록 할 것이다. 지난 달 중국전력건설그룹은 아르헨티나와 태양광 프로젝트를 체결했다. 이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중요한 결과이자 양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일대일로의 공동번영을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성과이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인프라 건설 확충을 원하고 중국은 기술과 장비를 해당 지역에 사용할 능력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은 함께 노력하고 서로 보완해 나가며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협력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국-라틴 아메리카 자유무역지역(FTZ)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라틴 아메리카 경제통상협상은 효과적인 체제이다. 2016년부터 중국은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쿠바, 에콰도르와의 경제통상협력위원회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고 멕시코와는 제7차 고위층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이 협상을 통해 양측은 경제통상 협력에서의 문제점 및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2016년 6월에는 마카오에서 제2차 중국-라틴 아메리카 인프라협력포럼을 개최해 양측의 인프라 건설 분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그 밖에도 현재까지 중국은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은 페루와 칠레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출국 그리고 최대 수입국이다. 칠레는 중국의 2대 과일 수입국이자 3대 와인 수입국, 7대 해산물 수입국이다. 2016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라틴 아메리카를 방문해 중국-칠레 FTA 업그레이드 협상과 중국-페루 FTA 업그레이드 연합연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콜롬비아와는 FTA 실행 가능성 연합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 외에도 우루과이는 중국의 FTZ 건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관련 국가도 중국-남미국가 연합의 FTZ 건설 구상을 제기했다.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간의 금융 협력을 강화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15년 중국은 중국-라틴 아메리카의 생산력협력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300억 달러 규모의 전용펀드를 설립하고, 브라질과

200억 달러 규모의 협력펀드를 공동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제시한 '1+3+6' 중국-라틴 아메리카 실무 협력 중 인프라 건설자금을 위한 200억 달러의 차관, 100억 달러 규모의 양허성 차관과 50억 달러의 중국-라틴아메리카 협력펀드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중국은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설립했다. 현재까지 중국-라틴아메리카 협력펀드와 양허성 차관, 중국-라틴아메리카 인프라 건설 차관을 토대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중국-라틴 아메리카의 생산력협력펀드를 통해 중국 기업은 브라질 수력발전소 2곳의 독점운영권을 확보했다. 앞서 언급한 프로젝트는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인프라 건설, 자원 에너지 개발 및 전력 등 분야의 협력을 촉진했다. 향후 중국은 중국계 은행과 보험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며 이와 더불어 라틴 아메리카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인 중국-라틴 아메리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더욱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SF**

#### 알립니다

- CSF 칼럼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